

# 이란 반정부 시위의 경제적 배경과 전망

**강문수**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연구위원 (kangms@kiep.go.kr, 044-414-1204)

**유광호**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전문연구원 (khryou@kiep.go.kr, 044-414-1165)

**이다운**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전문연구원 (dawnlee@kiep.go.kr, 044-414-1378)



## 차 례

1. 이란 반정부 시위의 발생 경과
2. 시위의 경제적 배경: 구조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
3. 전망 및 시사점

## 주요 내용

- ▶ [시위 배경 및 경과] 2025년 12월 28일 테헤란 시장 상인을 중심으로 시작된 시위는 이란 리알화 가치 폭락과 주요 생필품 물가 급등으로 촉발되었으며 경제난에 항의하는 파업 시위에서 반정부 시위로 확산됨.
  - 2025년 12월 이란의 리알화 가치는 6개월 전 대비 56% 하락한 달러당 142만 리알을 기록했고, 정부 재정 부족으로 인한 연료 보조금 제도 개혁안 발표에 따라 국내 휘발유 가격이 인상되면서 국내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52.6%를 기록함.
  - 이란 정부는 2026년 1월 기본 생필품 수입에 적용되던 우대 환율 제도를 폐지하고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정책 개혁안을 발표했으나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시위가 전국으로 확대됨.
- ▶ [경제적 배경] 이란 내 경기 악화의 원인은 원유에 대한 높은 의존도, 이중환율제 시행 및 보조금 지급에 따른 정부 부담 가중과 같은 구조적 요인과 대이란 제재에 따른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 제약,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재정 수입 감소 등과 같은 대외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이란의 원유 수출은 총수출의 40% 수준이며 2018년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이후 원유 수출이 급감하면서 재정 수입이 축소됨.
  - 이란 정부는 민생 안정과 물가 억제를 위해 필수재 수입에 대해 우대 환율과 연료 보조금을 적용해왔는데, 수출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와 경제 제재에 따른 환율 악화로 인해 정부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보조금 축소 등과 경제 개혁에 따른 고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짐.
  - 대외적으로는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2025년 이란-이스라엘 간 12일 전쟁 등에 따른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출 압박과 함께 국제 유가 하락(2025년 들어 50~60달러 수준을 기록) 등이 이란 내 경기 침체 악화로 이어짐.
- ▶ [전망 및 시사점] 2010년 들어 잇따른 경제 개혁 실패와 제재 심화로 보족한 정책 대안이 없어 국내적으로는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정상국가 진입을 위한 제스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이란 간 핵협상 의제에 대한 입장 차가 커 경제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이란은 2026년 2월 오만의 중재로 핵협상을 재개했으나 양측의 입장이 상이한 와중에, 국내 시위자가 다수 사망하면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어 대외적으로 대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임.

## 1. 이란 반정부 시위 발생 경과

■ [경과 2025년 12월 28일 테헤란 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이란 리얼화 가치 폭락과 물가 급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함.<sup>1)</sup>

- 금번 시위는 테헤란 그랜드 바자르(Grand Bazaar) 시장 상인들의 주도 아래 경제난에 항의하는 파업 시위로 촉발됐으나, 이후 신정 체제에 반대하는 반정부 운동으로 확산됨.<sup>2)</sup>
  - 시위대는 경제난에 대한 불만을 넘어 자유 박탈, 종교적 억압, 국가의 무력 사용 등의 근본적 원인이 현 신정 체제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독재자’라고 겨냥하는 반정부 구호를 외침.<sup>3)</sup>
- 일부 시위대가 팔라비 왕조 및 군주제 복귀 지지 구호를 외치는 한편 친정부 집회도 관측되었으며, 국가의 주요 치안 및 안보 기관 모두 현 정권을 이탈하지 않는 등 반체제 세력과 친체제 세력이 혼재함.<sup>4)</sup>
  - 이슬람 공화정 체제 변화를 노리는 반정부 시위대 중 일부는 1979년 이란 혁명 발생 이전까지 집권한 팔라비 왕조의 복귀를 지지하기도 함.
- 이란 정부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와 바시즈 민병대(Basij)를 투입하여 실탄 발포, 체포 등을 동원하여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였으며, 인터넷과 전화선을 차단하여 언론을 통제함.<sup>5)</sup>
  - 시위 시작 40여 일이 경과한 시점에도 인터넷이 부분적으로만 복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란 정부의 전파 방해에도 불구하고 스타링크 등을 통해 이란 현지 참상이 국제사회에 공개됨.<sup>6)</sup>
- 이란 정부가 발표한 공식 사망자는 2,986명(2. 1.)이나, 비정부기관의 일부 언론에서는 3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함.<sup>7)</sup>
  - 인권 활동가 뉴스 통신사 HRANA(Human Rights Activists News Agency)가 발표한 통계(2. 5.)에 따르면, 확인된 사망자는 총 6,941명으로 이 중 시위 참가자가 6,495명, 18세 미만 아동 171명, 민간인이 61명 등으로 집계됨.<sup>8)</sup>
  - 한편 반정부 언론인 이란 인터내셔널(Iran International)은 금번 시위에서 정부 발포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 3만 6,5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함.<sup>9)</sup>

1) "US warns Iran amid growing antigovernment demonstrations and clashes"(2026. 1. 9.), *Al Jazeera*(검색일: 2026. 1. 28.).

2) "What we know about the protests sweeping Iran"(2026. 1. 12.), *Al Jazeera*(검색일: 2026. 1. 22.).

3) "Sporadic protests in Tehran as riots reported in Iran's west"(2026. 1. 4.), *Al Jazeera*(검색일: 2026. 1. 22.).

4) Loft(2026. 1. 30.), "Iran protests 2026: UK and international response"(검색일: 2026. 2. 6.).

5) "Scale Of Iran Protest Massacres 'Rare Show Of Brutality,' Analysts Say"(2026. 1. 27.), *Forbes*(검색일: 2026. 1. 28.).

6) EIU(2026. 1. 27.), "Iran ramps up repression with US strike risks rising"(검색일: 2026. 1. 28.); "Starlink reportedly made free in Iran - but protesters are taking huge risks by using it"(2026. 1. 15.), *BBC*(검색일: 2026. 2. 8.).

7) "Questions after Iran's government releases victim list in protest killings"(2026. 2. 5.), *Al Jazeera*(검색일: 2026. 2. 6.); "The 'Disappeared bodies, mass burials and '30,000 dead': what is the truth of Iran's death toll?"(2026. 1. 27.), *Guardian*(검색일: 2026. 2. 8.).

8) "Day 40 of the Protests: Domestic Reactions, Continued Arrests, and Forced Confessions"(2026. 2. 5.), *HRANA*(검색일: 2026. 2. 6.).

9) Iran International(2026. 2. 2.), "Statement by the Editorial Board of Iran International"(검색일: 2026. 2. 6.).

## 2. 시위 발생의 경제적 배경: 구조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

■ [배경] 이번 시위는 이란 리알화 가치 폭락으로 촉발되었으나, 최근 이란 정부의 급진적인 제도 개혁이 경제난을 가중시키며 시민들의 불만으로 이어짐.

- 2025년 12월 기준 리알화 환율은 달러당 142만 리알을 기록했으며, 연간 인플레이션은 42.2%, 전년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은 52.6%에 달함.<sup>10)</sup>
  - 미국 달러당 리알화 공식 환율은 약 136만 리알이나, 실질 가치를 반영하는 비공식 환율은 142만 리알로, 이는 6개월 만에 통화 가치가 약 56% 하락한 수준임.<sup>11)</sup>
- 이란 정부는 2025년 12월 13일 새로운 연료 가격 책정 방식을 도입한 소비자 연료 보조금 축소안을 발표했으며 해당 정책은 휘발유 가격을 기존 15,000리알/리터에서 최대 50,000리알/리터로 인상하는 방안임.<sup>12)</sup>
  - 정책 시행 이후 기존 2단계 가격 등급 체제로 운영되던 에너지 소비자 가격 제도가 3단계로 조정되었으며, 정부는 연료 수요 및 공급, 경제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가격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함.<sup>13)14)</sup>
  - 이번 가격 책정 방식 도입에 따라 전체 휘발유 사용자 중 43%에 해당하는 월 160리터 이상을 소비하는 소비자는 3단계인 리터당 5만 리알의 가격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이란 정부가 매년 보조하는 500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보조금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sup>15)</sup>
- 시위가 진행 중이던 2026년 1월 1일, 이란 정부는 기본 생필품 수입에 대해 달러당 42,000리알 상당의 고정 환율을 적용하던 우대 환율 제도를 폐지하고 소비자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정책 개혁안을 발표하였으나, 이후 물가상승률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상인들까지 시위에 동참함.<sup>16)</sup>
  - 이란 정부는 2010년대 이후 밀과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우대 환율인 달러당 42,000리알을 고정으로 적용했으나, 정부 환율과 시장 환율 간 환차익에서 수익을 얻던 수입업자의 보조금 악용을 방지하고 소비자 및 가계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목적으로 기존 제도를 폐지함.
  - 이란은 2024년 리알화 가치가 1달러당 76만 리알에 달하면서 수입 의약품에 대한 우대 환율을 달러당 285,000리알로 상향한 바 있으며 정부 환율인 NIMA가 달러당 54만 리알로 상승하면서 수입 제품에 대한 환차손 보전을 위한 정부 재정 투입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바 있음.<sup>17)</sup>

10) Statistical Centre of Iran(2025), "Consumer Price Index for the Month of Azar, the Year 1404," <https://old.sci.org.ir/english/SCI-New-s-Archive/ID/23457/consumer-price-index-for-the-month-of-azar-the-year-1404-base-year-1400100>(검색일: 2026. 1. 28.).

11) Cordall(2026. 1. 16.), "Why is Iran's economy failing, prompting deadly protests?"(검색일: 2026. 1. 28.).

12) Iran International(2025. 12. 13.), "Iran officially rolls out higher gas price under new three-tier system"(검색일: 2026. 1. 28.).

13) 월간 할당량 구매 시 1단계 가격인 리터당 15,000리알이 적용되며, 개인 스마트 주유 카드를 사용하여 추가 휘발유 구매 시 2단계 가격인 리터당 30,000리알이 적용되고, 할당량을 모두 소진했거나 주유 카드가 없는 경우 추가 휘발유 구매 시 3단계 가격인 리터당 50,000리알이 적용됨.

14) "Iran adds new gasoline price tier starting in December"(2025. 12. 27.), *AP News*(검색일: 2026. 1. 28.).

15) The Geopolitical Desk(2025. 12. 20.), "Is Iran shielding the state or its people?"(검색일: 2026. 1. 28.); OilPrice.com(2025. 12. 15.), "Iran Hikes Gasoline Prices For The First Time Since 2019"(검색일: 2026. 2.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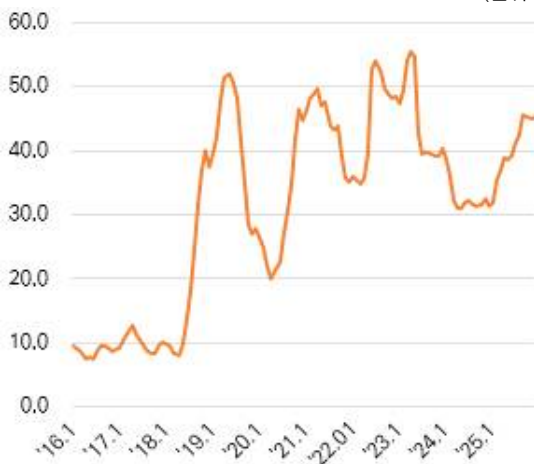
16) Iran International(2026. 1. 1.), "Iran president says government will stop subsidized dollar handouts"(검색일: 2026. 1. 28.).

17) IranWire(2024. 12. 16.), "Iranian Government Struggles with Controlling Eight Different Exchange Rates for the Dollar"(검색일: 2026. 2. 9.).

- [구조적 요인] 자국 경제가 원유 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민생 안정을 위한 이중환율제 시행, 식료품 및 에너지 보조금 지급 등이 대외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원유 의존도] 이란은 구조적으로 원유 부문이 자국 재정 및 대외수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국제유가 및 원유 수출 변동에 이란 경제 상황이 민감하게 반응함.
  - 공식적인 통계가 발표되고 있지 않아 기관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이란은 재정의 약 25%, 대외수출의 약 40%를 원유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sup>18)</sup>
  - 2018년 8월 일 315만 배럴에 달하던 이란의 원유 수출은 2018년 제재 복원 이후 일 100만 배럴대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이에 따라 선박 간 화물 이송 혹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원유를 수출하는 비공식 수출 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sup>19)</sup>
- [이중환율제] 이란 정부는 민생 안정 및 물가 억제를 위해 생필품 및 의약품 등 필수재 수입 시 우대 환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재정 지출은 자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18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 파기 이후 역내 물가는 크게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2020년대 들어서는 월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0~50% 사이에서 변동을 지속하고 있음(그림 1 참고).
  - 이에 이란 정부는 2022년부터 생필품 수입에 달러당 285,000리알의 우대 환율 적용해왔으나,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하면서 환차손 보전을 위한 재정 지출이 매년 확대됨.<sup>20)</sup>
  - 2026년 1월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생필품 수입에 대한 환율 보조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으나, 생계비 부담 확대에 대한 국민 불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월별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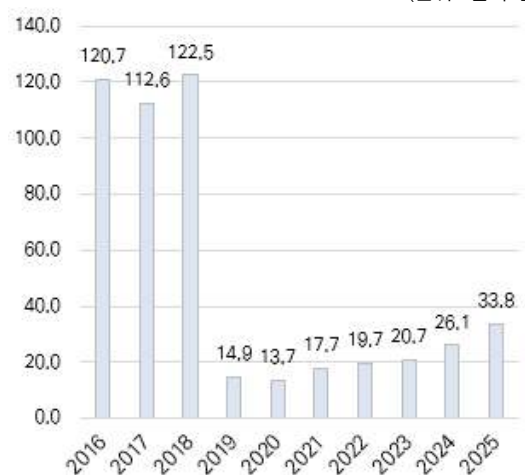
(단위: %)



자료: IHS Markit, Comparative Forecast Data(검색일: 2026. 1. 16).

그림 2. 외환보유액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검색일: 2026. 1. 16).

18) Carole Nakhle(2025. 9. 1.), "Iran's oil sector: Strategic presence, diminished influence," GIS(검색일: 2026. 2. 7.); OEC.  
 19) Stimson(2025. 10. 2.), "Iran's Oil Exports: Resilience Amid Sanctions and 'Snapback'"; United Against Nuclear Iran(2025. 12. 15.), "November 2025 Iran Tanker Tracker"(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6. 2. 9.).  
 20) Middle East Forum(2025. 12. 16.), "Iran's Currency Collapse Accelerates as Inflation Surges"(검색일: 2026. 2.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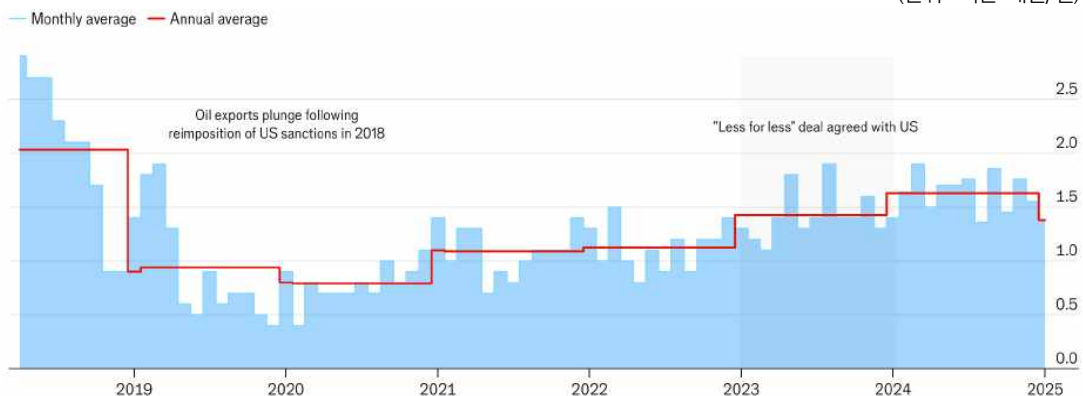
- [에너지 보조금] 이란은 휘발유, 전력 등 에너지 제품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재정 부담뿐 아니라 에너지 과소비 유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음.
  - 이란은 세계에서 에너지 보조금 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보조금 규모가 연간 약 3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전 세계 에너지 보조금의 약 16%에 해당하는 규모임.<sup>21)</sup>
- 에너지 보조금 규모가 커지면서 이란의 재정수지는 장기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며, 외환보유액 역시 핵합의 파기 시점인 2018년에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과거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이란 재정수지는 2010년 이후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으며, 최근 3년간 적자 규모가 GDP 대비 3% 이내에서 관리되긴 하였으나 2025년에는 5.4%로 크게 악화됨.<sup>22)</sup>
  - 2019년 외환보유액은 전년 대비 1/9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이후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하였으나 2010년대와 대비하여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그림 2 참고).

■ [대외적 요인] 최근 이란 경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국제유가 하락 등의 대외적 요인이 맞물려 더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중동 내 불안정한 정세] 2020년대 초반 이란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자국 원유 수출 회복에 힘입어 4%대 이상의 성장 추세를 이어왔으나,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시점을 기점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2025년에는 -1.6%의 역성장을 기록함.
  - 2020년대 들어 이란 경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이란 원유 수출 제재 완화와 더불어 원유 수출 회복이 전체 성장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며, 특히 2023년에는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13.2% 증가하면서 전체 성장률도 5.3%를 기록함(그림 3 참고).<sup>23)</sup>
  - 2024년에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및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원유 수출 압박의 영향으로 성장 추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이 발발한 2025년에는 민간소비, 정부지출, 민간투자, 순수출 전 부문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임.<sup>24)</sup>

그림 3. 이란 원유 수출량 추이

(단위: 백만 배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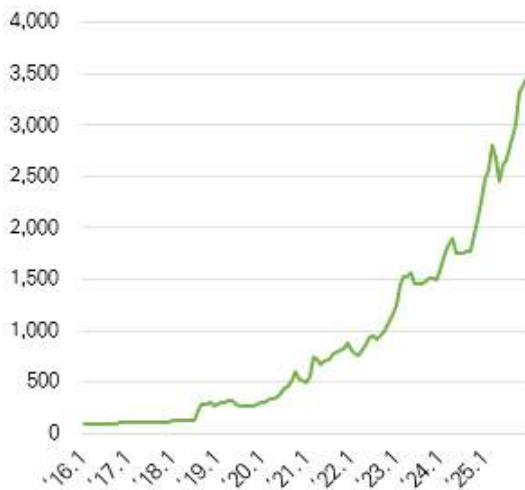


자료: EIU, One-click report: Iran, January 2026, p. 30.

21) "Iran Spends Tens Of Billions Of Dollars A Year On Energy Subsidies"(2022. 2. 4.), *Iran International*(검색일: 2026. 2. 7.).  
 22) IHS Markit, Comparative Forecast Data(검색일: 2026. 1. 16.).  
 23) EIU, *One-click report: Iran, January 2026*, p. 33.  
 24) *Ibid*.

- [환율 급등] 환율 또한 최근 1년간(2024~25년)의 상승 폭이 과거 7년간(2016~23년)의 상승 폭보다 크게 나타나는 등 상승 속도가 가팔라지는 양상을 보임.<sup>25)</sup>
  - 이란 핵합의 이행 개시 시점인 2016년 1월의 이란 공식 환율(달러당 34,011리알)을 100으로 놓고 보았을 때 2023년 12월 환율은 1488(달러당 506,381리알), 2025년 12월 환율은 3,450(달러당 1,173,630리알) 수준으로 평가됨(그림 4 참고).
- [국제유가 하락] 국제유가가 2022년 이후 전반적인 하향 추세를 보이고 최근 1년간 50~60달러대(WTI유 기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원유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란 경제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IMF는 2025년 기준 이란의 재정균형유가를 현 국제유가 대비 약 2배 높은 배럴당 124달러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음.<sup>26)</sup>
  - 공식 원유 수출량은 2018년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에 따라 일산 100만 배럴대 이하로 급격히 감소 하였으나, 이후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현재는 하루 150만 배럴 수준에서 소폭의 반등을 지속 하고있는 것으로 추정됨(그림 3 참고).<sup>27)</sup>

그림 4. 월별 환율 추이



주: 2016년 1월을 100으로 놓고 지수 환산  
자료: IHS Markit, Comparative Forecast Data(검색일: 2026. 1. 16.).

그림 5. 국제유가 추이

(단위: 달러/배럴)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검색일: 2026. 2. 9.).

25) IHS Markit, Comparative Forecast Data(검색일: 2026. 1. 16.).

26)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Middle East and Central Asia(April 2024)*, Statistical Appendix.

27) 다만 많은 국가 및 거래 주체들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선적 원산지를 위장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대(Shadow fleet)'를 활용해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유 수출 규모와 최종 수요처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한계가 존재함. 많은 자료가 이란산 원유가 말레이시아, UAE 등지에서 환적 후 원산지가 변경된 형태로 중국에 수입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3. 전망 및 시사점

- [이란 정부의 대응] 2010년대 들어 보조금 개혁 및 환율 방어 실패 등 경제 정책의 연이은 실패로 정권 교체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란 정부는 국내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 정세 불안정 타개를 위해 미-이란 핵협상을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도 있음.
- 미국의 대이란 제재와 압박이 거세지고 리얼화 가치가 급락함에 따라 이란 정부는 환율 방어와 물가 안정을 위해 긴축 재정 기초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과거 정책 실패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이 이번 시위를 통해 표출되었기 때문에 시위 주동자 구속 및 사형 등 강경한 기초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이란 정부는 대이란 제재 강화에 따른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 침체로 인해 외환 확보가 어려워, 대외적으로는 미국, 이스라엘 등과의 분쟁 가능성으로 인해 국방 예산 감축도 사실상 불가능해 미-이란 핵협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적 수단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
- 2010년대 들어 연이은 경제정책 실패와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에 따른 대외 무역 제약으로 인해 이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지 않아, 미-이란 핵 협상 타결을 통한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과 재정 확보가 국내 경기 침체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임.
  - 2010년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경제 개혁 실패 이후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를 통한 대외경제협력 확대, 자산 매각, 선별적 소비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한 바 있음(표 1 참고).
  - 2019년 정부 재정이 한계에 달하면서 로하니 전 대통령은 하룻밤 사이에 국내 휘발유 가격을 최대 3배 인상하는 보조금 개혁<sup>28)</sup>을 단행하기도 함.
  - 그러나 미국의 제재 복원 이후 이란 재정 적자가 심화됨에 따라 2022년 라이시 전 대통령은 식료품 수입에 적용되던 고정환율제를 폐지하고 1달러에 285,000리알의 우대 환율제를 도입하였고 결과적으로 식료품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기도 함.
- 다만 2022년 히잡 시위 발생, 2025년 반정부 시위 발생 등 국내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불만을 가진 국민들의 시위 주기가 단축되고 있어, 안정적인 정권 유지를 위해 미국과의 핵 협상을 통해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음.

28) 이란을 포함한 중동 주요국은 사회 계약의 일환으로 에너지 및 식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간접 보조금의 형태로 정부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며 그 덕분에 소비자 가격이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음.

표 1. 2010년대 이란의 주요 경제 정책 실패 사례

주요 경제정책	주요 내용	정책 시행 결과
연료 보조금 축소 및 직접 보조금 지급(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연료 보조금을 축소하는 정책을 시행했으며 이에 따라 재임기간 연간 인플레이션은 40%를 초과</li> <li>- 이란 정부는 에너지 보조금 대신 직접 보조금을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년 대이란 제재 이후 원유 수출이 급감하면서 정부 재정 악화</li> <li>- 사회적 불안정을 우려한 의회는 2012년 2차 경제 개혁을 제지함.</li> <li>- 이란 정부는 현금성 보조금 충당을 위해 중앙은행 화폐를 발행했으나 이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짐.</li> </ul>
고정 환율 정책(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이란 핵합의(JCPOA) 탈퇴와 제재 복원이 공식화되면서 이란 내 비공식 시장에서 환율이 급등하자, 자항기리 부통령은 1달러를 42,000리알에 고정하는 고정 환율 정책 발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말 비공식 환율은 달러당 19만 리알로 상승했으며 이란 내 달러화 부족 우려 확대</li> <li>- 정책 도입 이후 물가 안정보다는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상인과 수입업자를 중심으로 이익이 집중</li> </ul>
가솔린 가격 인상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미국의 JCPOA 탈퇴 이후 제재 복원에 따른 극심한 재정 적자로 인해 보조금 축소의 일환으로 가솔린 가격 인상안 발표</li> <li>- 하산 로하니 당시 대통령은 리터당 10,000리알이던 가솔린 가격을 60리터/월 구매까지는 리터당 15,000리알(약 0.127달러)로 인상</li> <li>- 60리터 초과분에 대해서는 리터당 30,000리알(약 0.254달러)로 인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으며 다수의 사망자 발생</li> <li>- 정부가 인터넷을 차단하고 시위대를 사살하면서 시위가 일단락됨.</li> <li>- 재정 적자가 지속되면서 2022년 라이시 대통령은 식품 수입에 적용하던 우대 환율 보조금을 폐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식료품 가격이 급등함.</li> </ul>

자료: Habibi(2014), "Economic Legacy of Mahmud Ahmadinejad. Working Paper Series 69"; Reuters(2014. 3. 27.), "Iran fuel price hikes will be big test for Rouhani"; MEES(2019. 11. 22.), "Iran Gasoline Prices Hike Fuels Nationwide Protest"; Forbes(2018. 4. 17.), "Iran fails to halt currency crisis, one week on from imposing drastic restrictions on dollar trading"; Radio Farda(2018. 12. 25.), "Iran's economy in 2018: Pressure of sanctions and fear of recurrent unrest."

■ [미국의 조치] 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내 사망자 급증을 빌미로 군 전략 자산을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하였으며 이란 국내 정세가 불안정한 틈을 타 미-이란 핵 협상을 진행하고자 함.

- 이란 경제 악화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 중 하나는 미-이란 핵 협상 타결을 통한 합법적인 수출 재개 및 투자 유치이나, 이란이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미-이란 간 협상 의제 간극을 크게 줄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그동안 ① 이란 내 우라늄 농축 중단 및 기농축된 우라늄 해외 반출, ② 탄도미사일 사거리 축소, ③ 중동 내 친이란 세력 지원 중단 등 세 가지 조건을 요구해왔으나 이란이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2월 6일 오만에서 이란-미국 간 회담이 개최되었으며, 핵 협상이 주요 사안으로 논의됨.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의 군사적 조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임.
  - 금번 회담은 오만, 튀르키예, 카타르, 이집트가 중재국으로서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해 성사시킨 것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역내 주요국들이 미국에 외교적 해결을 촉구해옴.<sup>29)</sup>
  - 협상안은 이란의 3년간 우라늄 농축 전면 중단, 이후 우라늄 농축률 1.5% 미만 유지, 고농축 우라늄의

29) "In Iran crisis, Trump confronted limits of U.S. military power"(2026. 1. 17.), *The Washington Post*(검색일: 2026. 2. 6.).

제3국 이전 등을 포함함.<sup>30)</sup>

- 미국은 핵 프로그램 이외에도 탄도미사일 사거리 축소, 지역 내 대리 세력 지원 중단, 이란 자국민 인권 침해 문제 등에 관해 논의하고자 했으나, 이란은 금번 협상을 핵 협상으로만 제한하고자 함.<sup>31)</sup>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 가능성은 열어 두면서도, 군사적 개입을 암시하며 이란을 압박함.<sup>32)</sup>
  - 미국은 아라비아해에 항공모함을 추가 배치하여 군사력을 증강했으며, 회담 개최 이전(2. 3.) 미군이 자국 함정에 접근한 이란 드론을 격추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음.

■ [시사점] 이란 내 경기 악화와 국민들의 불만 고조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으나, 국내적으로 대안이 마땅치 않은 이란 정부가 대외 협력을 통해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돌파구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음.

- 이란 국내 경제 악화와 미국의 공격 위협에 따라 미-이란 핵협상 재개, 주변국인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UAE, 오만 등의 중재, 중국·러시아 등의 개입 등 이란을 둘러싼 정세 변화가 예측됨.
  - 최근 미-이란 핵협상이 이뤄진 오만을 비롯한 중동 지역 국가들은 이란 핵합의 타결 및 중동 정세 안정을 위해 물밑에서 미국, 이란과 협상 진행
  -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지속되거나 심화되면 경제적 위기 지속에 따라 국민의 이란 내 민심 이반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이는 정권 교체로 이어질 수 있어 이란 내 온건파를 중심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음.
- 미-이란 핵협상이 상호 우호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한-이란 경제 협력 재개를 염두에 둔 전략 마련이 요구됨.
  - 미-이란 핵협상이 부분적으로 타결되어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완화되면 주요국의 이란 진출이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이란 내 인프라, 석유화학, 제조업 시장 진출, 소비재 수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KIEP**

30) Al Jazeera(2026. 2. 6.), "US-Iran talks live: Key negotiations in Oman in push to prevent war - What did mediators propose ahead of the talks?"(검색일: 2026. 2. 6.).

31) "US and Iran talks to begin as fears of direct conflict continue 10 hours ago"(2026. 2. 6.), BBC(검색일: 2026. 2. 6.).

32) Geranmayeh(2026. 1. 27.), "Traps and limits: Why Trump bombing Iran won't deliver what he wants"(검색일: 2026. 1. 28.).